“세계유산 산사 위한 법령 제개정 필요”

설정 스님, 7월 24일 문화재청장 등 예방서 강조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하 산사)’의 원활한 보존 · 관리를 위해 관련 행정과 법령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7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진 문화재청장, 김계식 문화재활용국장, 홍석인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서은지 외교부 심의관의 예방 자리에서 세계유산 산사 관련 법령 제 · 개정을 정부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는 이전 단일 사적 등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면서 “건축, 유적만이 아닌 불교의 신앙과 수행, 문화, 생활 등 무형적 가치도 인정됐다. 이는 산사가 ‘살아있는 유산’임을 세계가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등재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스님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으로는 산사의 관리에 한계가 있다.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산사의 무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법 · 문화재보호법 ·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 신설과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회 계류 중인 세계유산법에
‘살아있는 유산’ 산사 포함해야
기존 문화재보호법 · 조례는 한계
행정 · 법령 등 보완 개정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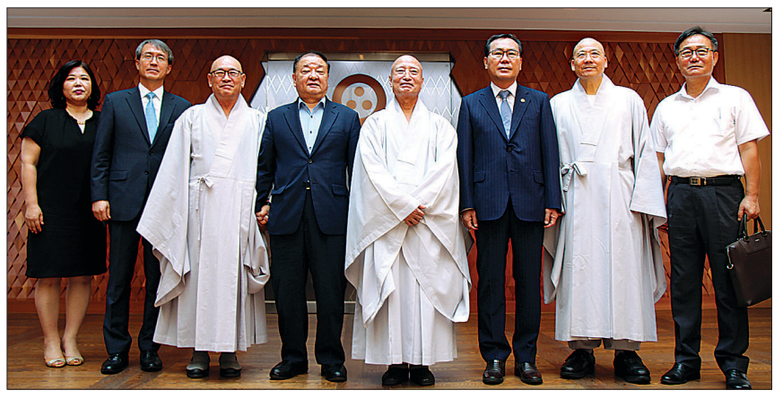
이에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기에 산사를 포함해 세계유산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령과는 별개로 산사의 진정한 가치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조계종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의 원활한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사의 경우 사적이 아닌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첫 사례로 당장 통도사, 마곡사, 부석사, 봉정사 등은 사적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전각, 탑 등 점 단위 보존 정책이 아닌 산 속에서 사찰을 유지하며 신앙과 수행을 지켜온 환경과 문화가 보장될 수 있는 면 단위 보존 정책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게 조계종의 입장이다.

문화부장 종민 스님 역시 지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등재는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문화유산을 인식해 이뤄진 것”이라며 “한국의 문화재 인식 역시 단순히 단일 문화재가 아닌 구성 요소를 함께 보존 관리하는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 산사와 같이 ‘살아있는 유산’은 더욱 면 단위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한편 조계종은 26일에도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사찰 대표 및 각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찰 보존 ·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약속했다.


조계종은 7월 24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에 공로가 큰 정부 부처 관계자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서은지 외교부 심의관, 홍석인 외교부 외교문화국장, 총무부장 지현 스님, 강창일 국회의원, 총무원장 설정 스님, 김종진 문화재청장, 문화부장 종민 스님, 김계식 문화재활용국장.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대종사 원적

7월 25일 법랍 62년, 세수 82세로

白雲下一僧(백운하일승)
惜心建通山(석심건통산)
次生再出盲(차생재출맹)
丹志及心王(단지급심왕)

백운대 밑 수행자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산을 뚫어(도량을) 세웠네.
다음 생에는 어두움 벗어나 굳센 뜻 부지런하여(마음의) 왕이 되리라.
-혜성 대종사 임종게-



청담문도회 문장 진불장 혜성 대종사〈사진〉가 7월 25일 낮 서울 도선사에서 법랍 62년,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다. 분향소는 도선사 호국참회원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9일 오전 10시 도선사서 엄수됐다.

1937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혜성 대종사는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과 1962년 각각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3 · 4 · 5 · 9 · 10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하고, 도선사 주지 재임시절 도량불사에 힘을 쏟아 당시 도선암을 지금의 도선사로 사격을 키웠다.

이외에도 1976년 혜명보육원을 설립해 복지분야서도 활동을 시작, 1995년에는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다. 1974년에는 팽성중학교를 인수해 학교법인 청담학원을 설립했고, 중앙승가대학교가 김포로 이전하고 4년제 대학으로 인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교 인재 양성에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혜성 대종사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10.27 법난’으로 고문과 폭행, 도선사 주지 직에서 강제 퇴임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법난 이후 고문 후유증을 이겨내며, 인재불사와 불교사회복지 등에 공을 세웠다.

윤호섭 기자

화쟁의 눈으로 ‘낙태죄’ 바라본다

화쟁위, 8월 22일 토론회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찬반논쟁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불교계서도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오는 8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과 함께 ‘낙태죄,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화쟁위는 앞서 지난 2월 같은 주제로 한 차례 집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은 지난 집담회서 패널로 참가한 박사 북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는다. 또한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가 ‘낙태죄 논쟁의 배경과 역사, 현 상황의 쟁점 및 대안’을, 이미령 북 칼럼니스트가 ‘낙태와 관련된 종교의 역할’을 발표한다. 이외에도 신호승 동그라미대화훈련센터 대표와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간사가 화쟁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6억원 횡령 사건 ‘파문’

직원 횡령, 재단 측 7월 13일 확인
4년여 간 6억원 이상 횡령 드러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내부감사 과정서 회계담당 직원이 4년여 동안 6억 원 이상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산하 190여개 복지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불교계 대표 재단서 벌어진 일인 만큼 불교복지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은 7월 19일 운영비 횡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회계업무 담당 직원이 2014년 9월~2018년 4월 약 6억3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을 7월 13일에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확인 후 횡령 당사자 직무는 즉시 정지됐으며, 전액 변제 조건 하에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실은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사자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횡령금이 대부분 쇼핑, 미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파악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당사자 직무정지, 변제 밝혀
환수 별도로 민형사 책임
“일말 의혹 없게 후속 조치”

현재 재단 내 감사권 발동 및 외부추천 감사를 통한 회계감사, 총무원 감사국의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횡령금 변제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재단 측은 “현재 횡령 당사자 및 부모 등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전액 환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횡령금 환수와는 별도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관리부의 책임도 시인했다. 재단은 재발 방지와 운영 투명성 · 안정성 향상을 위해 △회계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 △사업담당 부서 간 상호 확인 절차 정비 등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일정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부대중에게 깊이 참회한다”며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과정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년간 이어진 횡령 사건이 최근 밝혀진 점에서 재정 · 감사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은 현재 내부 감사 이후 외부 전문회계사를 통해 추가 감사를 시행 중이며,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산하 복지시설에 상황을 전달했다. 책임자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원 수습기자

“현 집행부 중심으로 결속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7월 25일 특별담화 발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등
집행부 종단현황 보고 자리에서
선암사서 합동득도 수계산림도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7월 25일 “태고종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 종도가 결속해야 한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발표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호법원장, 종무원장 등의 종단 현안 보고 자리에서 이뤄졌다.

혜초 스님은 “편백운 총무원장이 빚도 갚고 잘하고 있으니 호법원과 규정부는 해종 행위를 하는 종도에 대해서는 종단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고,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결속하라”고 지시했다.

혜초 스님은 또 “태고종은 사설사암이 종단의 기본사찰들이지만, 창건주의 권한은 절대적이며 창건주는 주지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천중사 재산의 경매처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종회측의 행위에 대한 비판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태고종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협의회 회장 법성 스님과 총무 진성 스님은 종정 혜초 스님이 입회한 자리에서 ‘지난 7월 18일 대전에서 개최한 종무원장 협의회 간담회에서 도산전원장과 도광 종회의장, 법담 종회특별감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종무원장 협의회의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고, 종무원장 협의회를 해산한다’는 공고문에 서명했다.

한편, 태고종은 7월 25일 선암사에서 제43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총 46명의 행자가 등록, 참가했다.

태고종 정수원장 호명 스님은 “행자교육이란 사찰의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것인 만큼 힘들더라도 참고 견기는 연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태고종림 정수원에서의 수련생활이 출가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고두고 지남이 되고 추억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가행정진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